’19년 7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19. 8. 5

1. 경제일반 / p.5

2. 산업 / p.6

3. 자원·에너지 / p.8

4. 건설・플랜트 / p.10

5. 농업・식품 / p.14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

1. 경제일반

□ (경기 동향 지수) Emirates NBD(두바이 최대은행)의 **6월 구매자관리지수**(PMI)와 **두바이 경기지수**(Dubai Economy Tracker Index) 모두 **전월대비 하락**

○ **6월** 구매자관리지수*가 **57.7**로서 전월(59.4) 보다 **1.7 하락**했으나, 분기별 평균 기준 수치를 보면 **19년 2분기 평균 PMI가 58.2**로서 **14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통상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제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제조업 분야 경기 동향 지수'**이나, **Emirates NBD의 구매자관리지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400개 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비석유부문 경기 동향 지수'**임
(PMI가 통상 50을 초과하면 경기의 확장, 50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UAE의 구매자관리지수 월별 추이>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55.3	55.0	55.8	54.0	56.3	53.4	55.7	57.6	59.4	**57.7**

- 금년 들어 PMI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생산과 신규 주문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외부 수요(신규 수출 주문)도 5-6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생산 및 신규 주문 증가는 기업의 판매 가격 인하**에 의해서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음(이번 6월에도 기업의 판매가격이 또다시 하락)

- **이러한 이윤 압박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을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고용을 늘렸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혀 없었으며, 인건비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시장에서의 초과공급이 민간부문 임금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기업의 향후 수요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이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대상기업의 3/4 가량이 향후 1년 이내에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두바이 엑스포 2020**을 들었음

※ 참고로, Emirates NBD가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19.6월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아래와 같음

· 사우디아라비아 : 5월 보다 0.1 상승한 57.4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53.4	53.8	55.2	54.5	56.2	56.6	56.8	56.8	57.3	**57.4**

· 이집트 : 5월 보다 1.0 상승한 49.2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48.7	48.6	49.2	49.6	48.5	48.2	49.9	50.8	48.2	**49.2**

○ **6월 두바이 월간 경기지수***가 58.4로서 전월(58.5) 보다 0.1 하락

* Dubai Economy Tracker Index, 동 지수가 50을 넘으면 상승세를 의미

- **도소매업**은 59.9로서 전월(61.9) 보다 **2.0 하락**

- **건설**은 57.0으로서 전월(54.6) 보다 **2.4 상승**

- **관광**분야는 58.9로서 전월(59.5) 보다 **0.6 하락**

□ (통화 및 은행 부문) 주재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6월 주재국 통화지표를 보면, **M1**(현금 + 요구불 예금)은 **0.1% 증가**, **M2**(M1 + 저축성 예금 + 거주자 외화예금)는 **2.2% 증가**, **M3(M2 + 정부 예금)는 1.6% 증가**

○ M3 중 **정부예금**(정부의 중앙은행 예금과 일반은행 예금 합계)은 **2,944억** 디르함으로서 전월대비 **34억 디르함 감소**

<정부 예금 추이(단위 : 억 디르함)>

15.12월	16.12월	17.12월	18.12월	19.1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1,560	1,859	2,109	2,939	2,976	3,031	3,005	2,978	2,944

○ 한편, 6월 은행 부문 **총신용(총대출)**은 **1조 6,927억 디르함**으로서 전월(1조 6,814억 디르함) 대비 **0.7% 증가**

□ (주재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7.31일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0.25%(2.25~2.5% → 2.0~2.25%) 인하하자, UAE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25%(2.75% → 2.5%) 인하

○ **달러 페그제** (1달러 = 3.67 디르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 주재국 중앙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

- **미국 FRB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주재국 중앙은행도 미국과 동일한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임

□ (소비자물가) 주재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금년 1월~5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는데, **6월에도 또 다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연방통계청이 아직까지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재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이너스 예상

- **아부다비는 금년 5월 +0.5%, -6월 0.2%**로 소비자물가가 0%에 근접해 있으나, 두바이는 **금년 5월 -2.61%, 6월 -2.68%**로 **소비자물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 이는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 하락(공급 과잉)이 아부다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아부다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 18.12월 1.2%, 19.1월 –0.9%, 19.2월 –0.8%, 19.3월 –0.8%, 19.4월 –1.3%, **19.5월 0.5%, 19.6월 –0.2%**

** **두바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 18.12월 -0.37%, 19.1월 –3.61%, 19.2월 –3.91%, 19.3월 –3.63, 19.4월 –2.87%, **19.5월 –2.61%, 19.6월 –2.68%**

<주재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전년 동월 대비)>

18.7월	18.8월	18.9월	18.10월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3.78%	3.86%	3.10%	1.62%	1.34%	0.34%	**-2.39%**	**-2.53%**	**-2.48%**	**-2.09%**	**-1.09%**	**N.A.**

□ (연방정부 3개 부처의 수수료 경감 조치 발표) 주재국 내각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1,500여개의 정부 수수료를 취소·경감해 주기로 함

○ 연방재무부는 국제적인 모범관행(international best practice)과 주재국 연방정부의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 1단계로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수수료 1,200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수수료 80개, 교육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zation) 수수료 200개를 취소·경감

○ 예를 들어, 대리인(Agent) 간의 분쟁 수수료는 1만 2천 디르함에서 8천 4십 디르함으로, 상표권 등록 및 갱신 수수료는 1만 디르함에서 6천 7백 디르함으로, 외국기업의 매각 및 M&A 수수료는 1만 5천 디르함에서 1만 5십 디르함으로 경감됨

□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 무디스에 따르면, 18.1월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18년 연간 총수입은 270억 디르함**이며, 이중 **42퍼센트(113.4억 디르함)가 두바이에 배분되**었다고 함

○ **연방정부에는 총수입의 30%**(81억 디르함)가, **아부다비**에는 **총수입의 18%**(48.5억 디르함)이, 샤르자에는 총수입의 6%(16.1억 디르함)이 북부 에미리트들에는 총수입의 4%(11억 디르함)이 배분되었다고 함

-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인구가 비슷하지만, **관광객 지출 및 다른 에미리트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이 두바이가 월등히 많아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를 배분받은 것으로 분석

○ 이러한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은 **정부 수수료 경감 등에 따른 세입 감소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Audit & Advisory Services Focus Group에 따르면, **19년 부가가치세 총수입은 400억 ~ 500억 디르함**에 달할 것이라고 함

□ (ADGM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의 틀 공표) ADGM(Abu dhabi Global Market)은 **핀테크(Fin Tech)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투자매니저**인 Robo-Advisers*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framework)을 발표

* 인간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동화된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

○ ADGM의 금융서비스규제청(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의 로보어드바이저 인가 조건은 '**알고리즘 모델의 디자인, 성과, 보안**에 대한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알고리즘 모델의 편향성 극복** 등임

- 또한, **미화 25만 규모의 기본 자본**(base Capital)이 필요

○ 금융서비스규제청의 CEO인 Richard Teng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핀테크 영역으로서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결정 개선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

2. 산업동향

□ **(무바달라, 자산규모 2,290억달러로 크게 증가)** 아부다비 산업투자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ADIC(아부다비투자위원회)의 흡수 통합과 신규투자 증가로 2018년말 기준 자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2,290억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종합 수익은 34억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며, 150억 달러의 자산을 처분하고, 제약, 의료기술, 식량사업 등에 190억달러를 신규 투자함

○ 무바달라는 자국내에 Emirates Global Aluminium, Masdar, Aldar 부동산 개발사, Aabar 투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GE, Carlyle 사모펀드, 스페인 Cepsa 정유사, 오스트리아 OMV 석유개발사, Borealis 석유화학사, 캐나다의 Nova Chemicals 등을 보유하고 있음

□ **(두바이, 연구협력 플랫폼 설립 예정)** 두바이 정부기관인 Dubai Economy는 7개 산업클러스터에서 지역 대학교, 펀드, R&D중심 업체들이 파트너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임

○ 새로운 R&D 웹사이트는 참여자들이 경쟁력을 홍보하고 협력요청을 게시할 수 있는 대화형 Matchmaking 포털이 될 것이라고 함

□ **(칼리파대학, AI 연구소 발족)** 아부다비 정부가 운영하는 칼리파대학교는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설하였고 향후 5년간 44백만 달러를 신규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AI 연구소는 칼리파대학교 내의 로보틱스,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능력을 하나의 우산 아래 통합하여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기술 개발역량을 증진시킬 계획임

- 연구소는 2019년 가을학기부터 인공지능 분야의 학부, 석사, 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UAE, 122개 업종에 100% 외국인소유 허용)** UAE 연방정부는 7.2일 경제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3개 산업분야 122개 경제활동에 대해 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외국인 지분을 최대 100%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함

ㅇ 확정된 13개 산업분야는 ① 재생에너지 ② 우주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운송·저장 ⑥ 숙박·식당 ⑦ 정보통신 ⑧ 과학기술전문활동 ⑨ 행정 서비스 ⑩ 교육활동 ⑪ 보건 ⑫ 예술·엔터테인먼트 ⑬ 건설이며,

- 건별로 자국민 고용조건, 투자규모, 신기술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임

□ **(DPWorld, 석유서비스회사 Topaz 인수)** 두바이정부 소유의 항만물류 공기업 DPWorld는 오만과 영국 사모펀드로부터 석유운송 전문회사 Topaz Energy and Marine을 10.8억달러에 인수하여 석유가스산업에 신규로 진입함

ㅇ 오만 Renaissance Services사의 자회사인 Topaz Energy는 중동, 서아프리카 등에서 117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연결 총매출은 3.5억달러, 계약 잔고는 16억달러임

- 이번 인수는 사업 분야 확장 전략이라기보다는 수익성 차원인 것으로 분석됨

□ **(아부다비 11개 공기업, 1개 지주회사 산하로 통합)** 아부다비정부는 개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11개 기관을 하나의 지주회사 산하로 통합한다고 발표함

ㅇ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은 아부다비항만공사, 아부다비공항공사, 조달공사(Musanada), 문화단지관리공사(Two-four54), 아부다비미디어공사, 아부다비보건서비스공사, Modon 부동산개발사, 아부다비보험공사(Daman), 아부다비전시회사(ADNEC), 아부다비하수처리공사, 산업단지관리공사(Zones Corp.)임

3. 자원 · 에너지 동향

□ **(ADNOC 송유관회사에 싱가폴 국부펀드 참여)** 싱가폴 국부펀드인 GIC는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의 송유관 운영 자회사인 ADCOP에 6억달러를 투자하여 6%의 지분을 확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계약은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ADCOP의 지분 구조는 ADNOC이 51%, 미국 자산관리 및 사모펀드인 BlackRock and KKR이 40%, GIC가 6%, 아부다비연금펀드(ADRPBF)가 3% 지분을 보유하게 됨

□ **(두바이, 3년간 68개 변전소 설치 계획)** 두바이수전력청(DEWA)은 향후 3년간 68개의 132kV 및 11kV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2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18년말 현재 DEWA는 258개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소는 2018년에 설치됨.

□ **(아부다비석유공사, 중국과 전략적 MOU 체결)**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왕세제 중국 방문 계기에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와 초유황 가스전 개발, 해상유전 탐사, LNG 구매 등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담은 MOU를 체결함

ㅇ 이에 따라, ADNOC과 CNOOC는 아부다비의 상류부문 협력과 중국내 기존 정유설비를 포함한 정유 및 석유화학 투자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 **(UAE 거주자의 85% 원자력 지지)** UAE원자력공사(ENEC)이 UAE 거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5%가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 조사때 83%보다 증가하였으며, 바라카원전이 위치한 Al Dhafra 지역주민의 경우 94%가 지지함.

ㅇ 원자력의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78%로 나타났고, 바라카원전이 최고품질로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다고 믿는 비율은 무려 96%로 나타남

□ **(UAE국민 15명 원자로운전원 자격 획득)**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원전 운영주체인 Nawah Energy 소속 15명의 에미라티(UAE국적자)에게 원자로운전원 자격(SRO 및 RO)을 부여하였다고 발표함

ㅇ 원전 운영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인 운전원 자격 획득은 UAE 원자력사업의 미래를 위한 능력 배양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함

- Nawah는 추가로 50여명에 대해 운전원 자격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음

□ **(아부다비, 2,000MW 태양광발전소 입찰 개시)** 아부다비 수전력 설비를 맡고 있는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는 알다프라 지역에 건설된 2,000MW급 태양광발전소의 입찰을 개시함(입찰 마감을 10.31일로 제시)

ㅇ 동 프로젝트는 20평방킬로미터 부지에 단일 태양광발전으로는 세계 최대 용량으로 건설하게 되며, 2022년 1사분기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

- 낙찰자는 동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갖게 됨

4. 건설·플랜트 동향

□ 두바이 건설시장 하락세 지속 전망

ㅇ 두바이 건설 시장은 엑스포 2020까지 1년 정도 남은 현시점에서 완공 및 납품을 위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자와 하청업체, 납품업자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어느 한 부분에서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한편 두바이 건설시장은 2분기에 다수 대형공사의 완공으로 급격한 위축세를 보임

- 2분기 건설 및 교통 신규 계약액이 16억불인데 반해 완공 규모는 53억불에 이르러 동기간 37억불의 공사 순감소가 나타남

- 이는 세계 금융 위기로 2011년 20억불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 차량 공유로 인해 차량 소유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

ㅇ 차량 공유, 차량 호출 서비스, 커넥티드카 등이 늘어나면서 3.5 조불에 이르는 자동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기관 보고서에서 추정

ㅇ 소비자들이 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보다 필요 할 때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앞으로 공유 차량으로 인해 차량 소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

□ 에티하드 레일 2단계 관련 동향

ㅇ 에티하드 레일 2단계 패키지 D는 샤르자에서 푸자이라간 98km 주선 및 29km 지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운영 관련 패키지는 현재 입찰 진행 중

- 역사 및 운영관리 시설 패키지와 통합운영시스템 패키지는 입찰 마감이 8.18일까지 연장되었고, 화물운송시설과 철도시스템 패키지도 입찰 마감이 연장될 전망

□ **무사나다, 40억불 규모 프로젝트 집행 준비 완료**

○ 아부다비공공서비스회사 무사나다는 2020년경 두 개의 교량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이들 교량은 각각 3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로써 무사나다는 40억불 규모의 다수 프로젝트 집행 준비를 완료

* 무사나다는 2007년 아부다비 통차자인 칼리파왕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 수행하고 있음

□ **알다르, 활발한 개발사업 추진**

○ 아부다비 최대 개발자인 알다르는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14억불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디얏, 야스, 알팔라에서 각각 사업 착수 전망

- 이들 프로젝트들은 2021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

○ 아부다비 정부는 알다르와 같은 민간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시장에서 발주량이 많아지고 경제가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

□ **ADNOC, 하일 앤 가샤 가스전 프로젝트 패키지 1 입찰 개시**

○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하일 앤 가샤 가스전의 패키지 1 입찰 초청서를 발송, 9월 셋째주까지 기술입찰서를 접수할 예정

- 하일 앤 가샤 해상 가스전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하루 10억 ft^3의 가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100억불에 이를 전망

ㅇ 하일 앤 가샤 가스 프로젝트는 총 4개의 EPC 패키지로 구성되며 그중 패키지 1은 주요 해상 시설 공사로 사업비는 35~40억불로 추정

- 우리나라 현대, GS, 대우, SK, 삼성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ADNOC 주관 달마 가스전 프로젝트 상업입찰 곧 착수

ㅇ 사전심사 통과 업체들이 총 15~20억불 규모 달마 가스전 프로젝트 상업 입찰서를 7.22일까지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패키지A는 해상 플랫폼, 해저 파이프라인, 시추정을 설치하는 공사로 10억불 규모이며, 패키지B는 육상에 설치하는 가스 처리시설로 2억불 규모로 추정

- 사전심사 통과업체들은 아국 현대건설을 비롯 10여개 업체들로 알려지고 있음

ㅇ 달마 해상 가스전은 아부다비의 가샤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드녹이 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두바이홀딩스, 마디낫 주메이라 지역 대규모 개발 추진

ㅇ 두바이홀딩스는 마디낫 주메이라 리빙을 설립하여 두바이 마디낫 주메이라와 버즈 알 아랍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첫 단계 사업자를 선정

- 마디낫 주메이라 리빙은 마디낫 주메이라 반대편에 위치한 움 수퀘임 지역에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현지기업인 알 사헬과 계약

ㅇ 해당 프로젝트는 버즈 알 아랍 호텔 양쪽에 인공섬 두 개를 조성하여 37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휴양시설, 주택,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것임

□ CSCEC, 이마르 주관 마리나 비스타 프로젝트 수주

ㅇ 중국국영건설공사(CSCEC))가 두바이항에 두 개의 주거용 타워를 건설하는 마리나 비스타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

ㅇ 프로젝트는 이마르 해변을 따라 35층, 45층 짜리 주거용 타워 두 동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마르 해변은 2017년 두바이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음

5. 농업·식품 동향

□ UAE 두바이, 모든 식당에서 식용 꽃 및 꽃 장식 사용 금지(7.17, Gulfnews)

ㅇ Dubai Municipality는 7월 14일부터 두바이 내 모든 식당에서 식용 꽃이나 꽃 장식이 사용되는 모든 음식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발표 함

- 이번 조치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두바이 식품안전 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Food Safety)에서 결정 됨

ㅇ 최근 두바이를 비롯해 UAE, 중동 전역에 식용 꽃을 활용한 요리나 음식 장식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꽃의 재배와 유통 중에 함유되었을지 모르는 벌레 또는 살충제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 되고 있음

ㅇ 두바이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통해 건강한 외식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함

- 식품 안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두바이 행정부의 최근 행보에 따라 앞으로도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 질 것으로 예상 됨

□ 두바이,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안 제정예정(6.20, Food Navigator)

ㅇ 최근 유전자 조작 식품(GM Foods)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두바이 행정부(Dubai Municipality)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연방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새로운 법안은 유전자조작 식품 및 농작물에 대하여 개발, 제조, 생산, 유통과정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고안됨

ㅇ 현재 28개 이상의 유전자 조작 식물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404가지 이상의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두바이 행정부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한 국내 시장 유입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음

- 현재 DM산하 두바이 중앙 연구소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라벨 내용이 실제 식품성분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설비를 구축하고 새로운 검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적용 중